

음란 소녀 탄생기*

—1960년대 대중 잡지 『명랑』과 하이틴 소설

이주라**

1. 서론
2. 문제적 소년·소녀와 십대의 성(性)
3. 사나이의 자기변명과 이상적 남성
4. 소녀의 욕망과 낭만적 사랑
5. 결론

국문 요약

이 논문은 1960년대 대중 잡지 『명랑』을 중심으로, 1960년대 중반 십대들을 둘러싼 성 담론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1960년대 중반에 부상한 불온한 십대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이에 대한 대중 잡지 속 담론의 특징, 그리고 대중 소설에 나타나는 십대들의 재현 방식을 정리하면서, 당대 담론 주도층인 남성들의 성담론과 욕망 그리고 욕망의 대상인 십대 소녀들의 성과 사랑에 대한 인식을 함께 분석하였다.

『명랑』이 기획한 하이틴 소설에는 자발적으로 처녀성을 버리는 소녀들이 등장하였다. 음란한 소녀들은 지식인 담론에서는 비판과 계몽의 대상이 되었지만, 대중잡지 속 담론과 소설에서는 남성 대중들의 본능을 죄의식 없이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22568).

**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HK연구교수.

하고 대중잡지 속 소녀들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육체적 사랑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주체성을 동경하였다. 이러한 욕망 속에서 이성적으로 여자를 지켜주는 남성과 열정적으로 남자에게 다가가는 여성이 낭만적 사랑을 이룬다는 로맨스의 기본적인 요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1960년대 보수화의 흐름 속에서 문란한 존재로 규정되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십대들에 대한 성 담론과 소설적 형상화 방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1960년대 중반 주류적 담론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던 대중들의 성 인식 및 욕망이 드러났으며, 문화적으로는 1970년대 등장한 하이틴 문화와 소설의 형성 배경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주제어: 『명랑』, 대중잡지, 청소년, 십대, 하이틴, 소녀, 로맨스, 아저씨, 처녀성, 순결, 음란)

1. 서론

1964년 3월에 시작된 한일협정 반대 투쟁은 박정희 정권의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는 여러 가지 통제 수단들을 사회 전면에 드러나게 하였다. 1963년 민정 이양을 폐기하고 박정희가 직접 대통령이 된 이후, 박정희 정권은 민정 이양 폐기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불식시키고 정권의 기초를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일협정 반대 투쟁은 박정희 정권의 정책에 직접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조직적으로 집약되었던 대대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의 입장에서는 더욱 위협적이었다. 정부는 강경 대응책을 모색하였다. 그 대응책이란 바로 두 개의 통제 장치(담론과 법)를 통해 ‘학원’과 ‘대학생’을 적대적 장소/존재로 만들어나가는 일이었다.¹⁾ 법적 질서 속에서 그리고 정부 주도의 사회 담론 속에서,

4·19 혁명의 주역이었던 대학생들은 ‘불온’한 집단이자 우리 사회의 문제적 집단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중반, 사회의 문제적 집단은 대학생만이 아니었다. 1964년부터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예술가, 여성, 청소년마저 통제의 대상이 되거나 제재의 대상이 되었다. 이 시기부터 군부 정권의 사회적 통제가 강화되었던 것이다. 1964년 6월에는 박용구의 신문연재소설 『계룡산』이 외설죄 위반 혐의를 받아 작가가 입건되었다. 예술과 문화의 영역도 ‘불온’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²⁾ 한편 여성과 청소년의 풍기가 문란해지고 그들의 범죄율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³⁾ 1964년에, 대학생은 불온해졌고, 예술은 외설이 되었으며, 청소년과 여성은 타락하였다. 이 시기에 특별히 대학생들의 사상이나 예술의 경향이 급변했다거나, 여성과 청소년의 도덕이 급격하게 타락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보다는 이들에 대한 통제의 시선과 제도가 강화되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1960년대 중반이 되면 사회 통제의 필요성을 논하는 담론이 급증하며, 이를 실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법적인 제재가 횡행하게 된다. 법과 담론은 주로 음란과 외설 그리고 불온을 이유로 사회 여러 집단에 제재를 가하였다. 불온의 칼날은 주로 지식인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음란의 문제는 미성년이나 하층 여성을 겨냥하였다. 미성년이나 하층 여성은 사회적 혼란과 문란함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념의 소유자로 간주되었다.⁴⁾ 이들은 사회적 타락의 대표적인 담지자였기 때문에, 법적 사회적으로 통제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대상이었다. 이 시기에 이들의 문

1) 김성보 외, 『한국현대생활문화사 1960년대—근대화와 근대화』, 창비, 2016, 73쪽.

2) 임유경, 『외설과 법, 판례의 탄생-1960년대 '문예 재판'과 외설 담론 연구』, 『개념과 소통』 21, 한림과학원, 2018, 173-174쪽 참조.

3) 권명아, 『음란과 혁명—풍기문란의 계보와 정념의 정치학』, 책세상, 2013, 274쪽.

4) 권명아, 『음란과 혁명—풍기문란의 계보와 정념의 정치학』, 책세상, 2013, 275쪽.

제적 지점, 즉 여성 범죄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폭증하였으며,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호되거나 통제되어야 한다는 담론도 증가하였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담론들 또한 1960년대 중반부터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청소년들은 십대, 하이틴, 틴에이저라는 명칭으로 호명되었다. 하이틴과 틴에이저에 대한 신문 기사는 1958년부터 존재하였지만, 1961년 정도까지는 그 수가 1년에 10건이 넘지 않았다. 하지만 1962년부터는 35건 이상을 차지하며, 1964년에는 51건까지 수치가 올라간다.⁵⁾ 청소년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수록 그들에 대한 사회적 담론도 증가하였던 것이다. 이들에 관한 기사는 대부분 ‘청소년의 일탈’을 주제로 다루었다. 『회색지대 방황하는 『틴·에이저』』, 『자학하는 청소년들의 탈선』⁶⁾과 같은 기사들만 보아도 청소년들의 방황과 탈선에 대한 염려와 비판과 통제 필요성을 논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하이틴이나 틴에이저의 생활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는 기사들도 있기는 하였다.⁷⁾ 이들 기사는 십대의 사랑과 학업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 통계와 설문을 통해 자세히 분석하지만, 종합적인 평가는 삶에 대한 인식이 가볍고 행동이 충동적이어서 위험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탈의 담론 속에서 청소년은 성적인 호기심을 조절하지 못하고 쉽게 타락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그들은 육체적인 호기심은 강하지만 소위 ‘드라이·러브’⁸⁾와 같이 연애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성적으로

5) 하이틴 및 틴에이저 관련 신문 기사 건수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검색 참조.

6) 『회색지대 방황하는 『틴·에이저』』, 『경향신문』, 1964.2.17; 『자학하는 청소년들의 탈선』, 『동아일보』, 1966.4.26.

7) 『젊은 풍토』, 『경향신문』, 1962.7.11-18; 『고민하는 하이틴의 생태』, 『경향신문』, 1962.9.14-21.

8) ‘웨트·러브’의 반대말로, 감정적으로 센터멘탈해지지 않고, 쉽게 사귀고 헤어지는 경향을 일컫는다.(『젊은 풍토 (1)』, 『경향신문』, 1962.7.11)

탈선할 가능성이 높다. 호텔이나 뮤직홀 등에서 트위스트를 추며 방탕하게 놀고, 타락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⁹⁾ 주요 일간지나 종합지와 같은 미디어에서는 십대의 타락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바탕으로 그들을 계몽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드높였다. 십대를 계몽시켜야 한다는 담론은 주로 청소년을 가르칠 의무와 책임을 가졌다고 인정받는, 그리고 사회의 주요 미디어들을 장악하고 있는, 주류 지식인들의 목소리였다.

그렇다면 당대 대중잡지에 나타난 십대에 대한 담론은 어떠했을까. 1950년대 중반에 창간되어 1980년대까지 명맥을 이어간 대중잡지들에는 『아리랑』, 『명랑』, 『희망』, 『사랑』 등이 있다. 이러한 대중잡지들은 중·고등 정도의 학력 수준을 가진 독자들에게 널리 읽히며, 그들의 사회 인식과 감성 그리고 욕망을 대변하였다.¹⁰⁾ 이 잡지들 중에서 가장 베스트셀러는 『아리랑』이라 할 수 있었지만, 신태양사에서 발간한 『명랑』 또한 『아리랑』 못지않은 인기를 구가하였다.¹¹⁾ 『아리랑』이 주로 소설 위주의 구성을 갖추었다면, 『명랑』은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영상 매체에 대한 소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기획 기사, 연예 가십 등을 다루

9) 『호텔 안의 분위기 정화』, 『경향신문』, 1962.7.8.

10) “잡지가 논의될 적마다 항상 소외당하기 십상인 것은 이른바 ‘대중잡지’, ‘틴·에이저·매거진’이라고도 불릴 만큼 청소년들이 독자 주류를 이루는 이 잡지야말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현재 발행되고 있는 것은 『명랑』, 『아리랑』, 『로맨스』, 『영화잡지』, 『청춘』, 『부부』, 『인기』, 『흥미』, 『삼천리』, 『킹킹』, 『사랑』, 『야담과 실화』 등 12가지 정도. (중략) 독자의 평균 학력은 중졸에서 고졸이 대부분이고 평균 연령은 19세 내외.”(『안절부절 대중잡지』, 『매일경제』, 1970.3.28)

11) 잡지 『명랑』은 1950년대, 1960년대를 대표하는 대중오락잡지였으며, 발간 당시에 잡지 판매 순위는 늘 10위 권 안에 들었다. 대중오락잡지 순위로만 따지면, 『아리랑』에 이어 항상 2위 정도를 유지하였다. (『잡지 진단』, 『동아일보』, 1962.8.24; 『11월의 서점가』, 『동아일보』, 1962.12.7; 『2월의 잡지계』, 『동아일보』, 1963.2.8; 『3월의 베스트셀러』, 『동아일보』, 1963.4.18)

었다. 이런 면에서 『명랑』은 당대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므로 당대 대중들의 다양한 생태를 파악하기에는 『명랑』이 더욱 유용하다.

잡지 『명랑』은 1955년 11월부터 창간을 준비¹²⁾하였고, 1956년 1월에 창간하였다. 『명랑』은 종합월간지 『신태양』과 대중지 『실화』를 발간하고 있던 신태양사의 새로운 야심작이었다. 신태양사는 대중성에 대한 탁월한 감각을 바탕으로 성장한 주요 출판사였다. 이 잡지는 창간 이후 화보를 중심으로 한 7S 체제로 전환하면서 본격적인 오락 잡지로 자리매김했다. 7S란 Sex, Story, Star, Screen, Sports, Studio, Stage를 가리키는 말로, 영화와 극장, 스포츠와 연예 등 새롭게 등장한 대중문화를 전부 포괄하여 도시적인 오락거리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드러냈다.¹³⁾

『명랑』의 주요 독자는 일반 성인 대중이었으며, 성인 남성을 주요 타겟으로 삼았다. 하지만 ‘틴에이지 매거진’이라고도 불릴 만큼 청소년 독자층도 상당수 보유하였다.¹⁴⁾ 특히 남고생들은 학생 잡지인 『학원』과 더불어 『아리랑』이나 『명랑』과 같은 대중잡지들도 즐겨 읽었다.¹⁵⁾ 한편, 일반 서민 남성 독자뿐만 아니라 가정부인과 식모에 이르기까지 각 계층의 여성도 『명랑』의 독자층이었다.¹⁶⁾ 잡지의 내용을 보면 직장 초년생 여성의 처세술이나 신혼살림의 노하우 등에 관한 내용의 기획도

12) 『월간 『명랑』지 창간』, 『경향신문』, 1955.11.18.

13) 『1주년 기념 좌담회』, 『명랑』, 1958.11, 184쪽.

14) 『안절부절 대중잡지』, 『매일경제』, 1970.3.28.

15) 이화여대 교육연구회의 조사에 따르면, 남고생이 즐겨 읽는 잡지는 1위 『아리랑』, 2위 『학원』, 3위 『명랑』의 순이었다.(『『매스·콤』과 학생』, 『동아일보』, 1963.8.2)

16) “이 대중오락지들의 독자 분포도를 보면 전체 판매부수의 3분의 2가 지방에서 차지하고, 나머지 3분의 1이 서울에서 소화되는데 독자층은 대부분 군인 하사관들을 비롯하여 가정부인과 영세상인 및 직공과 심지어는 식모에 이르기까지 일반 서민들 사이에 널리 퍼지고 있다.”(『『半裸』의 대중잡지』, 『조선일보』, 1964.6.17)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였거나 결혼을 준비하는 여성들도 주 독자층 중 하나임을 짐작할 수 있다.

『명랑』의 독자층은 연령별, 젠더별로 다양하였다. 이러한 독자의 다층성은 『명랑』과 같은 대중잡지의 담론이 남성 지식인 담론에만 국한되지 않게 하였다. 물론 성인이자 남성이자 지식인의 기획과 집필이 주를 이루었지만, 중·하층 서민의 욕망 혹은 십대 학생들의 환상 등을 반영하였기에 『명랑』은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다만 젠더적으로는 남성의 욕망이 중심을 이루어서, 여성의 욕망 또한 주로 남성의 시선을 경유해서 나타난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당대 여성들의 욕망이 집중되는 곳을 잘 조명하였다. 즉, 『명랑』은 주류 담론에서 흔히 계도의 대상으로만 다루어지는 존재들인 십대 남·녀의 욕망과 목소리까지 포괄적으로 반영하였다. 이와 같이 『명랑』은 대중잡지의 성격상, 성인 편집자 및 창작자의 의도도 반영하였지만 동시에 남·녀 하이틴들의 욕망도 잘 드러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당대 대중문화의 다층적 양상을 살피기에 적합하다.

특히 『명랑』과 같은 대중잡지에는 성(性)에 관한 당대 사회의 관심과 욕망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1960년대 중반, 『명랑』을 비롯한 대중잡지들은 ‘섹스에 대한 저속한 흥미와 모랄이 없는 조잡한 외설’로 판매 부수를 올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¹⁷⁾ 이 시기 『명랑』의 기획은 ‘성(性)’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명랑』은 대부분의 기사에 내용과 관계없는 원색적인 외국 화보를 삽입하였으며, 성(性)에 관련된 기획 기사들을 대거 포진시켰다. 이러한 『명랑』의 변화는 1950년대 후반의 자유주의의 유행을 상업적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이기도 하였으며,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같은 시청각 매체의 발전에 대항하여 인쇄 매체의

17) 『半裸』의 대중잡지, 『조선일보』, 1964.6.17.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선정성을 이용하는 전략이기도 하였다. 『명랑』은 남·녀의 성적 차이에 관한 과학적 설명을 보여주거나,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한 부부 관계에 대한 조언을 전달한다는 취지하에 성(性)에 관한 기사를 기획하였다.

그 중에서도 1960년대 중반 『명랑』 기사의 특징적인 점은 십대의 성(性)에 대한 관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십대 청소년에 대한 『명랑』의 관심은 당대의 국가·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었다. 1960년대 한국은 근대화의 새로운 주체이자 국민으로 청소년에 관심을 집중하였다.¹⁸⁾ 아동과 청소년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¹⁹⁾ 사회적 담론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정체성이나 특성에 관한 집중적인 탐구가 이루어졌다.²⁰⁾ 『명랑』은 이러한 사회적 트렌드와 대중잡지의 선정성을 결합시켰다. 『명랑』은 십대의 정체성 탐구를 성(性)의 문제로 국한하여, 하이틴의 성(性) 생활, 윤리, 문제 등에 대한 기사들을 기획하였다. 이와 더불어 소설 섹션에서도 십대를 위한 소설인 ‘하이틴 소설’을 기획하기도 하였다.²¹⁾

18) 장수경, 『1960년대 『학원』에 나타난 근대화와 청소년의 위계화 양상』, 『비교한국학』 17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09, 451쪽.

19) 이혜원 외, 『아동청소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아동복지학』 28호, 한국아동복지학회, 2009, 77쪽.

20) 장수경, 『1960년대 『학원』에 나타난 근대화와 청소년의 위계화 양상』, 『비교한국학』 17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09, 452쪽.

21) 『명랑』의 하이틴 소설은 1965년 5월부터 기획되어 1967년 4월까지 지속되었다. 『명랑』은 매월 4-6편 정도의 소설을 싣는다. 1960년대에는 보통 애정, 명랑, 추리 장르의 연재소설을 3편정도 수록하고, 1-2편 정도의 외국 작품들, 그리고 1-2편 정도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단편소설을 게재하였다. 1960년대로 들어서면, 기획 단편 코너에서, 역사물이나 야담류의 단편소설이 사라지고, SF물 혹은 트렌드 기획물·스타가 쓴 소설이나 ‘가요 입체 소설’ 등이 자주 등장한다. 하이틴 소설은 1965년에서 1967년까지는 거의 매일 한 편 씩 기획되어 연재되었다. 작품 수로는 한 편이지만, 전체 소설 기획 속에서는 거의 20%의 비중을 차지하며, 연재소설 및 해외소설 코너를 제외하면,

미성년인 십대의 성(性)은, 근대적 법체제가 정비된 식민지시기 이후, 성교육의 계도 대상으로 다루어지거나 성범죄의 피해자로만 다루어졌다.²²⁾ 1960년대 지식인 담론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대중잡지 『명랑』에서 다루어진 십대는 성인들의 성적 대상이면서 동시에 그들 스스로 자유로운 성(性)문화를 즐기는 성적 주체의 모습으로도 드러난다. 즉 지식인 담론 속에서는 포착되지 않는, 십대의 성(性)에 대한 다양한 태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다층적인 독자의 욕망이 영겨있는 대중잡지 『명랑』을 통해, 십대 하이틴의 성(性)을 둘러싼 담론의 특징을, 1960년대 중반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명랑』에 관한 연구는 1950년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나 명랑소설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최애순과 권두현은 1950년대 『명랑』을 중심으로 이 잡지가 독자를 공유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김연숙은 독자란을 통해 1950년대 개인관계 담론을 살펴보았다.²³⁾ 김지영과 이주라는 『명랑』에 실린 명랑소설을 분석하면서 ‘명랑’이라는 개념의 의미와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²⁴⁾ 한편, 『명랑』 속 성(性)인식과 이

기획 소설의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다는 점, 1960년대 중반이라는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하이틴 소설의 구체적인 목록은 3장의 각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2) 박차민정, 『조선의 귀어-근대의 틈새에 숨은 변태들의 초상』, 현실문화, 2018, 62-63쪽, 68쪽 참조.
- 23) 권두현, 『전후(戰後) 미디어 스케이프와 공동감각으로서의 교양-취미오락지 『명랑』에 대한 물질 공간론적 접근』, 『한국문학연구』 44호, 2013, 7-46쪽; 최애순, 『1950년대 활자매체 『명랑』 ‘스토리’ 공유성과 명랑공동체』,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9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241-262쪽; 김연숙, 『대중잡지 『명랑』을 통해 본 전후 개인관계의 서사-1950년대 후반 ‘독자사교란’ 기획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2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6, 39-69쪽.
- 24) 김지영, 『‘명랑성’의 시대적 변이와 문화정치학: 통속오락잡지 『명랑』의 명랑소설(1956~1973)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78호, 민족어문화회, 2016, 217-268쪽; 이주라,

에 대한 소설의 대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김지영과 김현주의 연구에서도 관심을 기울인 바 있다.²⁵⁾ 김지영은 주로 사랑과 연애의 개념과 담론에 초점을 맞추어 잡지 『명랑』의 성문제를 다루었으며, 김현주는 1950년대 자유주의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성 담론 및 잡지 『명랑』 속 성애 소설을 다루었다. 지금까지 잡지 『명랑』 속 성담론과 관련 소설에 대한 연구는 모두 1950년대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와 달리, 이 글에서는 1960년대 중반에 나타난 잡지 『명랑』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었다. 1960년대 중반 집중적으로 기획되었던 하이틴의 성(性)에 관한 기사와 소설을 통해, 십대의 성(性)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과 그 특징과 더불어 십대 스스로의 욕망과 그 특징을 다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 문제적 소년·소녀와 십대의 성(性)

대중잡지는 지식인 담론 속에서 대중에 영합하고자 하는 선정성에 대해 항상 비판을 받아 왔다.²⁶⁾ 대중잡지는 대중을 내세우는 순간, 그 저속함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을 지니고 있지만, 대중잡지 속 저속함의 정도와 내용은 시대마다 차이를 보인다. 『명랑』과 같은 경우, 1965년을 전후하여 화보를 중심으로 한 노출과 성적 내용이 심해졌

『건전 국가를 일경하는 명랑 시민』, 『개념과 소통』 20호, 한림과학원, 2017, 87-117쪽.
25) 김현주, 『1950년대 오락잡지에 나타난 대중소설의 판타지와 문화정치학-『명랑』의 성애소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19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3, 83-116쪽; 김지영, 『1950년대 잡지 『명랑』의 '성'과 '연애' 표상-기사, 화보, 유머란(1956-1959)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10호, 한림과학원, 2012, 173-206쪽; 김지영, 『통속오락잡지 『명랑』을 통해 본 전후(戰後) 사랑의 인식 구조-195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68호, 민족어문화회, 2013, 217-268쪽.

26) 『대중잡지가 걸어가야 할 길』, 『동아일보』, 1961.8.23.

다. 특히 십대나 하이틴을 주제로 한 기사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대부분 이 기사들은 십대의 성(性)을 다루었다. 조선일보 기사 「반라(半裸)의 대중잡지」²⁷⁾에서는 대중잡지들이 자극적인 섹스와 모랄이 없는 오락으로 독자를 유인하고 있다면서, 『명랑』에 실린 「십대의 성(性) 모랄」과 같은 기사는 ‘결혼 전의 성교는 사회적 타락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나’ ‘성행위가 정신위생상 좋다는 등의 선정적 발언을 신고 있어서 문제적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사와 함께 실리는 화보들이 대부분 노출이 심한 여성이나 남녀의 과도한 스킨십 장면을 담고 있다는 점도 좋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대중잡지에서 다루고 있는 십대의 성 담론은 대부분 ‘자유와 방탕’이라는 주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십대는 성을 자유롭게 즐기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십대 성윤리의 핵심은 ‘즐거라!’인 것이다. 당대 십대들의 생태를 분석하고 있는 신문기사들을 살펴보아도, 십대들은 연애와 사랑을 가볍게 여기며, 성윤리의 강박에서도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당대 십대들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라고 여겨졌다.

십대들의 성윤리 변화는 당대 사회에 대두하는 새로운 현상이었다. 주요 일간지에서는 이들의 성윤리를 걱정하며 계도할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반면, 대중잡지인 『명랑』에서는 새로운 현상을 흥미롭게 전달하는 데에 더욱 치중하는 것 같아 보인다. 앞서 언급한 「십대의 성모랄」이나 1966년 6월호에 실린 「10대 성, 혁명은 어디까지 왔나」 등의 기사는 성해방 담론이 시작되며 자유로운 성적 생활을 향유하는 서구 사회에 대해 소개하며, 우리 사회 십대들의 성윤리 또한 개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면적으로 보면 『명랑』은 십대들의 성해방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듯하다.

27) 「반라(半裸)의 대중잡지」, 『조선일보』, 1964.6.17.

하지만 『명랑』 또한 십대들의 성윤리 변화에 대해 나름의 평가를 내리는 시선을 담지하고 있다. 이는 하이틴 관련 기사의 편집방식을 봐도 잘 드러난다. 1966년 1월호에 실린 『하이틴 코너-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는 하이틴 독자들의 고민을 받아서 그 사연을 소설처럼 각색하여 전달하는 기사이다. 이 기사 속에는 하이틴들의 성 문제, 특히 십대 소녀들의 성적 타락과 고민들이 소개되고 있다. 대부분 집안 사정이나 피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처녀성을 상실한 후 임신이 되었으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걱정 혹은 새로 만난 남자 친구에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등을 담고 있다. 일단 하이틴 코너의 주된 대상이 이렇게 순결을 잃고 타락한 십대 소녀들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대중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대상은 언제나 여성이었으며, 그중에서도 순결했던 소녀의 타락은 항상 자극적 소재였다. 다음으로는 이 기사의 편집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 이 기사는 십대 소녀들의 고민을 소개한 후, 그 말미에 의학박사나 소설가 등 사회의 지도적 역할을 차지하는 성인 남성들의 충고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편집되었다. 십대 소녀들의 성적 타락은 그 자체로 전시되면서 남성 대중들을 자극하지만 동시에 도덕적인 성인 남성들의 비판을 받으며 교화되는 대상이 된다.

‘하이틴 코너’뿐만이 아니라 여성이 쓴 수기를 실을 때에도 대부분 이러한 편집 방식을 선호하였다. 여성의 성적 타락과 문란을 실제 체험을 전달하는 형식을 통해 전시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의 시선을 덧붙이는 것이다. 1965년 6월에 실린 『체험 수기 종합 연구-여자가 될 무렵의 성전(性典)』은 소설가 이호림이 독자 수기 중 한 편을 선택하여 소설로 각색하여 전달하면서, 그 선택의 이유와 수기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덧붙인다.

그러나 내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젊은 사람의 상처 입은 교제의 기록이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그 섹스 의식은 몹시도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바람기 있는 남성들에게 기어들 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이 가는 길은 타락에로의 길입니다.²⁸⁾

이호림이 각색한 수기는 고교 졸업 후 갓 회사에 입사한 여성 두 명이 회사 파티에서 만난 두 명의 남자와 한 방에서 잠을 자다가 각각 두 남자와 관계를 가지게 되고, 이후 이들 중 한 남자와 두 여자가 한 하숙방에서 지내며 성관계를 맺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수기를 선택한 편자인 이호림은 두 여성의 타락과 잘못된 성의식에 대해 비판하며,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기 위해 이 사연을 선택하였다고 말한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편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은 성을 함부로 즐기 말자인 것 같다. 하지만 이 비판이 방점을 찍고 있는 지점은 조금 다른 데에 있다.

편자는 이 두 여성을 비롯한 젊은 사람들, 더욱 정확히는 젊은 여성들의 잘못은 ‘호기심 때문이라고 말한다. 여성이 성에 대해 가지는 호기심은 남성에게 틈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여성의 타락은 여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게다가 편자는 호기심으로 처녀성을 잃는 여성을 소설로 각색하면서, “긴장한 남성의 근육 밑에 깔렸을 때, 무서움과 더불어 눈부신 황홀감이 지향이의 온 몸을 엄습하는 것이었다.” 라고 설명한다. 꽤 상세한 행위 묘사에 덧붙여진 여성의 내면은 젊은 여성이 남자의 강요로 인해 이루어진 성관계를 결국은 즐겼다는 것처럼 그려진다. 이 수기를 전달하는 편자의 인식은 이러한 것 같다. 여성의 호기심은 남성이 다가올 여지를 주고, 남성이 일단 다가오면, 여

28) 이호림, 『체험 수기 종합 연구-여자가 될 무렵의 성전(性典)』, 『명랑』, 1965년 6월, 78쪽.

성은 그것을 즐긴다는 것이다.

잡지 『명랑』에 나타나는 성(性)인식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1965년 6월호에 실린 『당신의 심리를 테스트합니다-남녀의 심리 백서』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성적 차이점’이나 ‘애정이 변동하는 까닭’ 등을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의거하여 설명해 준다. 여기에서는 성적 방면에서 남녀의 차이를 말하면서 “왜 남성은 언제든지 성행위를 할 능력을 갖고 있는데 여성은 남성이 친절, 안도, 칭찬, 애무와 같은 것으로 유혹하여 성행동으로 끌어넣어야 하는가?”라고 질문한다. 이에 대한 답은 남성은 뇌구조 상 성적인 생각을 주로 하지만 여성은 그보다는 의복이나 동무에 대한 생각을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남자는 본능적으로 성에 탐닉하며 즐길 수밖에 없고, 여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남자의 성욕은 언제나 작동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참을 수 없지만, 여성은 성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여성은 성적인 유혹과 성욕의 충동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 이 논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여성은 자신이 노력하면 성욕에 휩싸이지 않고 순결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잡지 『명랑』에서도 여성의 순결은 중요했다. 특히 1960년대에 접어들며 가부장제가 강화되며 사회가 보수화되면서 대중문화에서의 순결주의 강조는 더욱 강화되었다. 1965년 6월 이호림이 편집한 체험 수기를 전달하면서, 명랑 편집부는 이와 관련한 앙케이트도 진행하였다. 이 앙케이트는 ‘성행위를 어떤 동기에 의해서 알게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을 정리하면서 편집부는 여성들이 ‘동무로부터 들어서’ 섹스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난다면, ‘여성에게 순결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에 대해 여성 스스로가 잘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명랑』 편집부도 여성의 순결을 표면적으로 강조한다. 여성의 순결이 중요하다는 것은 지식

인 계층이나 대중 모두 공유한 당대의 상식이었다.

그런데 잡지 『명랑』은 여성의 순결이 여성의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명랑』에 나타난 남녀의 성인식은 ‘남자는 참을 수 없으니, 여자가 조심하라’ 였다. 『명랑』은 독자 수기 외에도 독자의 고민 사연을 받아 그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주는 『명랑 인생상담소』 코너는 매 호 게재하였다. 여기에는 여드름 고민에서부터 수음에 대한 궁금증까지 다양한 종류의 고민들이 들어왔지만, 대부분 청년들의 연애 고민 혹은 어디에도 털어 놓을 수 없는 성문제 상담들이 주를 이루었다. 1965년 8월호에 실린 고민 중 하나는 당구장 종업원으로 일하는 17세 소녀의 사연이다. 이 소녀는 34세 중년 남성에게 몸을 더럽히고 말았는데, 그 이후에도 이 남자가 계속 찾아와서 관계를 가지다 보니 임신한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사연을 보냈다. 여기에 『명랑』이 보낸 답변은 이러하다. “어린 나이에 남성에게 당한 것은 동정이 가나 왜 반항을 하지 않았나 의심스럽다. 아마 양도 일종의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다.” 여자는 강제로 욕을 보이려는 남자에게 반항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자는 그것을 떨치고 나올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면 그것은 흔히 요즘 십대들이 가지는 성적 호기심 때문에 여자 스스로가 그 상황을 즐긴 것이라고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남자의 성적 충동은 어쩔 수 없는 본능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 속에서 여자의 순결은 여자가 지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당대의 성 담론은 진행되었다. 특히나 남성 독자들의 욕망을 자극하고자 하는 대중잡지에서는 이러한 성 담론이 노골적으로 표현되었다.

지식인 중심의 매체에서도, 대중 지향의 매체에서도 여성의 순결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남성 주체들은 문제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 여성들이 사회의 도덕적 요구에 따라 순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게 되면,

본능을 참지 못하는 남성들이 그 본능을 풀 수 있는 대상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1965년 6월에 실린 ‘위험한 계절’ 특집 기사에서 의학박사 이선희는 『여름은 정열이 솟구쳐도 위험 천만』이라는 기사를 쓰면서 남성들이 처한 이러한 딜레마를 보여주었다.

여름에 버스에서 추행을 당하는 N양의 사례를 들어, “N양처럼 훌륭한 히프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타이트 스카트 안에서 흔들리는 것을 본다면 어떤 남성이고 간에 충동을 느끼게 되며 맛사지를 해보고도 싶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상대방을 책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충고한다. 역시나 남성의 성욕은 참을 수 없는 것이니 여성이 조심하라고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허지만 그로부터가 문제다. 주물르는데 대한 대책을 포기한 N양은 하는 대로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아졌고 끝내는 주물러주는 것이 기분이 좋고 주물르지 않는 날은 무언가 허전한 감마저 느끼게 된다.” 라며 N양의 속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N양은 순결을 지키기 위해 남성을 멀리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남성이 접촉할 경우에는 그것이 추행일지라도 남성의 손길을 즐기는 존재로 그려진다.

그러면서 의학박사 이선희는 남성의 접촉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 ‘결코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여자는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남자와의 접촉을 즐길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 글은 여성이 몸가짐을 조심할 것을 경고하면서도, 남녀의 성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여성이 가지게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여기에는 남성과의 접촉을 피해라, 그런데 만약의 경우 남성이 접촉해 오면 즐겨라, 라는 모순된 명령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여성의 순결만을 강조할 경우, 그래서 조신한 몸가짐만을 강조할 경우, 남성들은 자신들이 즐길 수 있는 대상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딜레마 앞에서 남성들은 ‘즐기는

여자의 형상을 창조하였다.

여성의 성욕을 인정하지 않고 억제만 하면, 남성의 성욕 또한 통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본능에 충실하게 성욕의 충동을 참고 싶지 않은 남성들은 자신들의 성욕 발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자 또한 남성의 손길을 즐긴다는 논리를 만들어 냈다. 세상 모든 남성의 손길은 경계해야 하지만 ‘나’라는 남성이 손을 대면 내가 손을 댄 그 여자는 나의 손길을 즐길 것이라는 논리는 본능에 충실한 남성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였다. 이 논리는 자유로운 성을 즐긴다고 판단되는 십대들의 성윤리와 합쳐지면서, 남성들과의 성관계를 즐기는 십대 소녀들의 형상으로 구체화되었다. 식민지시기 팜프파탈들이 대부분 중년 여성이었고, 1950년대 아프레걸의 대표자가 여대생이었던 것에 비하면, 항상 순결함의 표상으로 여겨지던 소녀의 이미지가 ‘즐기는 여자’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은 흥미롭다.

3. 사나이의 자기변명과 이상적 남성

성을 자유롭게 즐기는 소녀의 형상은 196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는 ‘하이틴 소설’²⁹⁾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명랑』은 1960년대 중반부터 ‘하

29) 1960년대 『명랑』에 하이틴을 위해 기획된 소설들에 대한 명칭은 각 소설마다 모두 다르다. ‘fiction for highteen’이나 ‘highteen fiction’ 혹은 ‘십대 소설’이나 ‘청춘 소설’과 같은 표제로 기획되었다. 각 소설들의 표제가 동일하게 제시되지는 않지만, 당대 십대들을 트렌디하게 지칭하는 호명이 ‘하이틴’이었다는 점, 『명랑』의 기획 소설이 이 ‘하이틴’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그리고 모두 ‘소설’의 형식을 빌어 게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하이틴을 위해 『명랑』에서 기획된 소설을 ‘하이틴 소설’이라 부르기로 한다. 덧붙여, 이 명칭은 1970년대 이후의 하이틴 문화 및 하이틴 로맨스와의 연관성을 설정하기 위해서도 유용한 선택이라 생각한다.

이틴'이나 '틴에이지'라 명명되는 십대들에 대한 기획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소설 코너에도 '십대 소설', '청춘 소설', 'fictions for teens', '하이틴 픽션', '틴에이지 소설'이라는 표제를 단 소설들을 연재하였다.³⁰⁾ 이 소설들은 1965년에서 1967년 초까지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다. 그 이전과 이후에는 이런 표제를 단 작품들이 없었다는 점에서, 1960년대 중반에 나타난 하이틴에 대한 관심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소설들이 하이틴 소설이라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소설 속에 십대 소녀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십대 소녀들은 작품 속 주인공의 위치이면서도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하이틴 소설의 서사는 거의 비슷하다.³¹⁾ 중년으로 추정되는 사나

30) 『명랑』에 연재된 하이틴 소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주명영, 『별거숭이 소녀』, 『명랑』, 1965년 5월 (Fiction for Highteen, 시인이 쓴 단편 소설)

장승기, 『깜깜한 방황』, 『명랑』, 1965년 12월 (Fiction for Teens)

권지연, 『야광충(夜光蟲)』, 『명랑』, 1966년 1월 (여학생 소설)

주 훈, 『검은 베일 쓴 소녀』, 『명랑』, 1966년 2월 (하이틴 픽션)

주경훈, 『열여덟』, 『명랑』, 1966년 3월 (십대 소설)

민경훈, 『이상한 소녀』, 『명랑』, 1966년 4월 (청춘 소설, 특선 권두(卷頭))

이호림, 『처녀상(處女像)』, 『명랑』, 1966년 6월 (특선 청춘 소설)

주경훈, 『위험한 계절』, 『명랑』, 1966년 6월 (Teen-Ager Story)

주영훈, 『장미의 질투』, 『명랑』, 1967년 2월 (권두 청춘 소설)

최 삼, 『정춘(情春)』, 『명랑』, 1967년 4월 (청춘 소설)

31) 『명랑』에 게재된 하이틴 소설의 서사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별거숭이 소녀』: 화가인 준은 길거리에서 따라온 소녀 미내와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헤어진 후 소녀상을 그려 전시한다. 전시회 날 미군과 함께 온 그 소녀가 자신이 그 작품의 주인공이라며 환하게 웃으며 그 작품을 산다.

『깜깜한 방황』: 석규는 수미와 사랑하는 사이지만, 자신의 친구이자 여동생 금숙의 동료인 진희에게도 마음이 간다. 수미와 다툰 후 술에 취해 진희와 하룻밤을 보낸다. 석규는 괴로워하지만, 진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한다.

『야광충』: 덕진은 여고의 역사 선생이자 테니스 지도 담당. 같은 학교 교사인 서정숙 선생을 좋아한다. 테니스 부 에이스인 여학생 최길숙이 덕진에게 개인 테니스 지

도를 당돌하게 요구하지만, 덕기는 거절한다. 이에 최길숙은 덕진과 서 선생의 사이를 학교에 고자질하여 서 선생을 내쫓는다. 덕진이 상실감에 밤낚시를 하고 있을 때, 밤바다에서 수영을 하던 최길숙이 덕진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 덕진은 교사다운 태도로 제자의 어깨를 껴안아 준다.

「검은 베일 쓴 소녀」: 잡지사 기자 승훈. 요즘 미스 홍이라는 알 수 없는 아가씨에게 전화를 받고 있다. 그러던 중 단골 다방 성 마담의 강권으로 성 마담의 집에 놀러간다. 그 집에는 이중 동생이라는, 성숙한 몸매를 가진 19세 소녀가 있었다. 성 마담과 술을 마시고 함께 밤을 보낸 후, 화장실에 가려다가 실수로 소녀의 방에 들어간다. 아침에 눈을 떠 보니 이미 소녀와 밤을 보냈다. 이를 모르는 성 마담은 승훈과 동거를 시작한다. 그러자 정체를 드러내지 않던 미스 홍이 만나자고 전화한다. 미스 홍은 성 마담의 이중 동생. 그녀는 그날 밤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승훈이 비겁하다며, 자신은 아무데로나 가겠다고 떠난다.

「열여덟」: 순나는 현수네 집 식모. 순나가 여자로서의 몸을 갖추자 대학생 현수가 순나의 몸을 범한다. 이후로 계속된 현수와 육체적 관계. 하지만 1년 후 현수는 급히 결혼. 알고 보니 여대생을 임신시켰기 때문. 이후 순나는 질투인지 분노인지 모를 감정에 현수네 집으로 찾아가 자신을 사랑해 달라며 현수 앞에서 옷을 벗는다. 하지만 현수는 부인에게 순나가 정신병이라고 몰아붙이며, 순수를 고향으로 쫓아 낸다. 순나는 고향에서 현수의 아이를 낳는다.

「이상한 소녀」: 승훈은 합승 정거장에서 같이 합승하자는 소녀를 만난다. 그 소녀는 승훈의 집까지 따라와서 옷을 다 벗어버린 후, 승훈이 자신에게 손을 댔다며 주장. 겨우 달래고 잠이 든다. 다음날 아침에 소녀는 사라짐. 그러다가 고공에서 우연히 그 소녀를 만남. 소녀는 승훈의 집에서 식모를 하겠다고 한다. 현재 그 소녀와 함께 지내는데, 외로움이 사라지고 행복함.

「처녀상」: 나는 파출소 수경. 내 담당 구역에 사는 미라라는 16세 정도의 소녀는 연못에서 상반신을 나체로 노출시킨 채 나를 부르며, 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옴. 나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미라를 도와주며 친하게 지냄. 하루는 미라가 나에게 자신의 처녀성을 가져가 달라고 부탁함. 나는 거절. 어느 날 미라는 술에 취해 나에게 와서 자신의 처녀성을 금반지 낀 사내에게 팔았다고 하며, 내가 자신의 처녀성을 가져주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 함. 그리고 미라는 떠남.

「위험한 계절」: 은나는 18세 소녀. 아버지가 요양 중 계모와 단 둘이 지냄. 계모는 관리인이라며 형준이라는 사내를 부름. 어느 날 밤 형준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은나를 범함. 그러다가 형준과 계모의 관계가 들통 나며 형준이 은나의 집을 떠남. 나중에 형준은 은나를 따로 불러내어, 그 집에서 유일하게 자기 자신이었을 때는 은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

「장미의 질투」: 은미는 부모님이 정해 준 결혼을 앞두고, 애인인 현구에게 자신을 데리고 도망가 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현구는 생계를 생각하면 무작정 도망갈 수 없

이(아저씨)가 우연히 길에서 낫선 십대 소녀를 만난다. 그 소녀는 사나이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다. 대부분 집에 같이 가자는 의도다. 사나이는 어쩔 수 없이 소녀와 하룻밤을 보낸다. 소녀의 적극적 구애를 피하려고도 하지만 결국은 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다음날 각자 헤어진다. 여기에서 소녀들은 모두 스스로 남성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그래서 맹랑한 존재들이다.

이 맹랑한 소녀들을 대하는 성인 남성의 심경은 복잡하다. 1965년 5월에 게재된 주명영의 『별거숭이 소녀』는 ‘시인이 쓴 단편소설’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실제로 주명영은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시인이다. 이 소설의 화자인 준은 무교동 어귀에서 빨간 가죽잠바에 스카프를 쓴 소녀를 만난다. 준은 소녀에게 여관으로 가자는 수작을 붙이지만 소녀는 말이 없다. 준은 혼자 여관으로 가는데, 여관에 도착해 보니 그 소녀가 따라와 있다. 그날 밤을 소녀와 보낸다. 하지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녀를 안았다는 분노,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백치처럼 잠을 자던 소녀에 대한 분노로 그 소녀에게 소리치며 따귀를 내려치고 만다. 그날 이후 준은 소녀상을 그리고 그것을 전시한다. <검은 소녀상>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었다. 어느 날 남자를 흘릴 것 같은 유혹적인 표정을 지닌 여자가 미군과 함께 전시회장에 들어와서, 자신이 그 소녀라며 그 그림을 사겠다고 환히 웃는다. 준은 그녀가 예전에 그렇게 웃어 주었다면 자신의 <검은 소녀상>이 망친 작품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

다고 한다. 결국 은미는 부잣집 남자와 결혼. 하지만 남편은 방탕한 사람. 은미의 남편은 몰락하고 은미가 생계를 위해 요정에서 일함. 그 요정에서 성공한 사업가인 옛 애인 현구를 만나고 비탄.

『정춘』: 미스 김과 미스터 한은 직장인이며 오랜 연인. 하루는 미스터 한이 회사일 때문에 미스 김과의 영화 관람을 취소하고 먼저 일어남. 미스 김은 절교 선언. 미스터 한도 여자를 너무 받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 이별의 시간 동안 미스 김의 괴로움. 결국 미스터 한의 직장으로 찾아가 둘은 다시 시작.

고 생각한다.

이 작품에 나타나는 화자 준은 소녀에 대한 두 가지 감정을 보여 주었다. 첫 만남에서의 감정은 분노였지만, 두 번째 만남에서는 안도로 바뀐다. 화자가 처음에 느낀 분노의 감정은 자신에 대한 죄책감에서 비롯되었다. 본능을 못 이기고 소녀를 건드렸다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다. 하지만 이 분노는 곧 소녀에게 전이된다. 그런 일을 당하고도 반항하지 않은 소녀에 대한 분노이다. 그럼에도 그 죄책감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던 화자는 두 번째 만남에서 매혹적인 여자로 변해 나에게 환하게 웃어주는 소녀를 보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된다. 미군과 함께 있으며 남자를 흘릴 줄 아는 매력을 가진 소녀의 걸모습이 화자가 소녀를 망친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소녀가 남자를 즐긴다는 것에 대한 증명일 수 있었으며, 더구나 그 소녀는 화자를 향해 웃어주면서 화자에 대한 어떤 원망도 없음을 보여주며 소녀의 현재는 화자의 잘못이 아님을 증명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이틴 소설 속 남성 화자는 본능에 충실하면서도 여성을 지키거나 책임져야 한다는 도덕적 요구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소설 속 십대 소녀들은 이러한 남성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역할을 맡는다. 그녀들의 적극성은 그녀들 스스로가 성을 즐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녀를 건드린 남성들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성을 자발적으로 즐기는 여성의 모습은 1950년대 아프레걸의 형상과도 겹친다. 하지만 1960년대 대중잡지 『명랑』에 나타난 즐기는 여성에 대한 성인 남성들의 인식, 그녀들에 대한 평가의 방식은 확연히 다르다. 정비석의 『자유부인』과 같이, 1950년대 남성 지식인 작가들에 의해 그려진 아프레걸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겠다는 이유로 사치스럽고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소설 속 지식인 남성 주인공 혹은 화자는 그러한 아프레걸을 계도하여 올바른 삶으로 이끌어간다. 반면에 1960년대

대중잡지 속 남성 주체들은 음란한 여성을 비판하고 계도하지 않는다. 대중잡지 속에서 남성들은 자신들의 성적 본능과 욕망에 충실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의 성욕은 참을 수 없는 것으로 정해 놓고, 그 본능을 마음 편히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여성 인물들을 이용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 인물들이 성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했다. 1960년대 대중잡지는 1950년대 아프레걸의 형상을 남성들의 욕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의적으로 전유하였다.

1966년 4월에 실린 『이상한 소녀』에 나오는 소녀도 아프레걸이 대중잡지에서 전유된 면모를 보여준다. 승훈은 합승 정거장에서 같이 합승 하자는 소녀를 만난다. 그 소녀는 정거장을 지나쳤다면 승훈의 집까지 따라온다. 그리고 승훈의 방에서 자겠다고 선언하며 이불을 뺏어 간다. 승훈이 손을 대면 옷을 다 벗어 버리겠다고 선언한 그 소녀는 승훈이 새벽에 추워 이불로 들어오자 옷을 다 벗어버린 후 승훈을 깨운다. 승훈은 놀라지만 다시 잠이 들고, 다음 날 아침에 소녀는 사라졌다. 나중에 다시 만난 그 소녀는 승훈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겠다고 한다. 승훈은 그 소녀와 함께 지내면서 행복을 느낀다. 낯선 남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면모, 자신의 몸을 거침없이 보여주는 모습 등은 1950년대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상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이 소녀의 적극적 행동은 결혼이 아닌 식모로 동거하는 현재의 상태에 남성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1960년대 대중잡지 속 적극적 여성은 남성의 욕망을 자유롭게 즐기기 위해 전유된 형상이다.

남성 작가와 독자에게 이런 적극적 소녀의 형상이 절실했던 이유는 자기변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남성의 성욕은 참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사회의 상식이었으나, 동시에 여성의 순결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도 사회적 강요였다. 이 두 가지 상충되는 상식 속에서 사회에서 바람직하

다고 여겨지는 남성상은 역시 여자를 지켜주고 책임지는 남성이었다. 남성의 성욕은 본능적으로 참을 수 없는 것이기에 그 본능을 이겨내고 여성의 순결을 지켜준 남자는 순결주의에 강박된 모든 여성들의 이상형이었으며, 풍기문란을 단속하고자 하는 사회의 이상향이였다.

그런데 미라는 더 중대한 발언을 거침없이 했다. 『나 처녀라는 게 귀찮아 졌어요』 『무슨 소리야』 『생각해 보세요 낮이나 밤이나 처녀를 짊어지고 다닌다는 건 여간 귀찮은 일이 아이예요. 누구에게 쥐버리면 시원하겠어』 『바보 같은 소리!』 『이 선생님이 가져줘요』 『무슨 소리야』 나는 희미한 벤치에 나란히 앉아 미라로부터 한 대 얻어맞은 꼴이 되어 버렸다
(중략)

미라의 볼이 나의 볼에 부벼졌다. 미라는 울고 있었다. 뜨거운 눈물이었다. 『왜 그래?』 『이 선생님, 늦었어요』 『늦다니……』 『어제 밤에 금반지를 낀 뽀뽀에게 팔아버린 걸……』 『금반지 낀 뽀뽀..』 『그래요!』 『그래넹!』 나는 공연히 화가 치밀었다. 그러나 그런 기분과는 반대로 미라를 더 꼭 껴안고 있었다. 『할 수 없었어요. 돈이 필요했는걸요. 이 선생님은 안 가져 주시구…….』³²⁾

대중잡지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이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욕망이 드러나기도 한다. 이호림의 청춘 소설 『처녀상』에는 순경인 '나'가 자신의 처녀성을 가져가 달라고 부탁하는 미라를 끝까지 거절하고 그녀의 삶을 묵묵히 보살펴 주는 모습이 그려진다. '나'는 자신의 처녀를 가져달라고 하는데도 그녀를 끝까지 아껴주는 이상적 남성으로 형상화되었다. 안타깝게도, '나'의 이런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그 맹랑한 소녀는 가난으로 인해 바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고, 금반지를 낀 사내에게 자신의 처녀성을 팔게 된다. 처녀성을 잃은 후 미라는 나에게 자신의 처녀성을 내가 가져

32) 이호림, 『처녀상』, 『명랑』, 1966년 6월, 154-155쪽.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까워한다. 미라는 자신이 마음을 준 사람에게 자신의 처녀성도 주고 싶었던 것이다. 이 작품은 여자를 아껴주는 것이 사회에서 강요하는 이상이지만, 여자가 적극적으로 나선 경우는 남자의 본능에 충실한 것이 오히려 여자를 위해 주는 일일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적극적 여성은 남성이 본능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만들어 준다.

확실히 1960년대는 순결주의가 강화되고, 보수적 성 담론이 득세했다. 하지만 여성에게 순결이 강조될수록 남성에게도 과도한 책임감이 부여 되었으며 남성의 성도 은밀하게 억압되어 갔다. 1960년대 대중잡지는 1950년대 아프리카결의 성해방 담론을 그대로 이어 받으며 사회적으로 문란한 주체로 지목되어 비난받았던 십대들의 가벼운 성운리를 이용하여 남성 주체의 욕망이 자유롭게 발산되는 담론을 계발하였다. 남성 주체의 욕망은 언제나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로 깔린 후, 이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문란한 십대 소녀의 형상을 창조하였다. 이 소녀들은 1950년대 지식인 작가들이 비판하고 계도하려고 하였던 대상이었지만, 1960년대 대중잡지에서는 대중 남성들의 욕망을 마음 편히 펼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4. 소녀의 욕망과 낭만적 사랑

대중잡지의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독자가 중·고등 학력을 지닌 남성 독자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욕망만을 균질하게 드러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은희경의 『새의 선물』에 나오는 '나'의 이모가 『명랑』을 보며 최신 유행을 익히고, 펜팔을 하며, 군인 남자 친구를 만났듯이, 『명

랑』은 하이틴 여성, 미혼 여성 그리고 신혼 부부 더 나아가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도 널리 읽히는 잡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명랑』에는 남성 대중의 욕망만이 아니라 여성 대중의 욕망도 혼재되어 나타난다. 물론 대부분의 집필진이 남성 지식인 작가들이기 때문에 여성의 욕망은 표면적으로 표출되지는 않지만, 사회적 트렌드의 변화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욕망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196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출판계의 가장 큰 이슈는 여대생 작가들의 등장이었다. 1959년에 최희숙이 ‘한국의 사강’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슬픔은 강물처럼』이라는 수필집을 내면서 젊은 여성들의 자유로운 연애 이야기를 선보였다.³³⁾ 이 흐름은 1962년 박계형의 출현으로 이어졌다.³⁴⁾ 박계형은 1963년 『젊음이 밤을 지날 때』를, 1964년에 『영과 육의 갈림길에서』를 출간하였고, 최희숙 또한 1964년에 『부딪히는 육체들』이라는 장편소설을 발간하였다. 이 소설들은 모두 여대생들의 연애와 성에 대한 고민을 전면적으로 노출하며 그들의 내면을 세세이션하게 보여주었다. 사회적 파급력도 엄청 나서 영화로도 연출되었다.

이영미는 적극적으로 성을 즐기는 이 여성들의 존재가 1950년대 아프레겔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하였다.³⁵⁾ 우선 1950년대 아프레겔들은 그들에게 비판적 시선을 가진 작가에 의해 그려졌다. 그러나 1960년대 여대생 작가의 작품 속 인물들은 그들의 내면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낸다. 무엇보다도 1960년대 여대생 작가의 작품 속 인물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졌다. 1950년대 여성 인물들이 표면적으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상 경제적 후원자인 패트론의 경제력과 자신의 성을 거래했던 것과 비교하면, 1960

33) 『신선한 진실과 매력』, 『조선일보』, 1959.12.21.

34) 이영미, 『한국대중예술사, 신파성으로 읽다』, 푸른역사, 2016, 340쪽.

35) 이영미, 『한국대중예술사, 신파성으로 읽다』, 푸른역사, 2016, 376-378쪽.

년대 여성 인물들은 오로지 자신의 마음에 따라 상대를 선택하고, 자신이 선택한 대상과 어떠한 거래도 없이 즐긴다.

여대생 작가들의 예상치 못한 인기는 여성들의 억압된 욕망을 풀어주었다. 아프레걸 이후 현모양처 담론에 종속되어가며 자유로운 성과 연애에서 멀어져가던 여성들의 숨겨진 욕망을 건드렸다. 상업적 출판 시장은 이러한 여성의 욕망을 포착하였고, 대중잡지 『명랑』 또한 시대의 트렌드를 쫓았다. 1960년대 중반 하이틴 소설을 기획하고, 하이틴 소설의 표제 중에 ‘여학생 소설’(권지연, 『야광충』, 1966년 1월)을 포함시킨 이유는 바로 그런 사회적 변화를 감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맥락 속에서 『명랑』의 하이틴 소설 속 십대 소녀들은 모두가 그렇게 맹랑하고 음란하였다.

『명랑』의 하이틴 소설에 나타나는 맹랑한 십대 소녀는 남성 작가의 시선에서 어떻게 포착되었느냐에 따라 1950년대 지식인 작가의 소설 속 형상과 차이를 보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십대 소녀들은 여대생 작가 작품 속 인물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지식인 여성 주체에 의해서 그려진 여성의 내면은 여성 대중 독자들의 숨겨진 욕망을 드러내며 그들의 욕망을 사회 전면에 부각시켰다. 『명랑』에 나타나는 하이틴 소설도 비록 대부분 남성 작가에 의해 쓰였지만, 사회적으로 부상한 여성들의 내면과 욕망을 반영하고 있다. 하이틴 소설 속 십대 소녀는 여대생 소설 속 여대생의 모습을 일정 정도 공유하고 있다.

대중잡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성을 즐길 수 있다는 여대생 소설의 성 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명랑』은 1966년 2월에 중점 특집 ‘여성, 그 마음의 뒤편길’을 게재하면서 여대생이었다가 현재는 가정주부가 된 두 유부녀의 고백 수기를 소개하였다. 이 두 수기는 모두 대학을 다닐 때 사랑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첫사랑과 헤어

지고 다른 남자와 결혼한 여자들의 이야기다. 이들은 현재 남편과 잘 맞지 않아서 혹은 과거를 들켜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자신들이 한 선택에 후회를 하지 않으며, 첫사랑과의 성관계, 그 속에서 느낀 즐거움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한다. 여대생 작가의 소설에 나타나는 것처럼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거기에 당당한 모습을 보인다.

여대생 소설과 하이틴 소설에 나타나는 적극적인 여성의 모습은 가정주부들의 타락을 그린 1950년대 소설과 거리를 둔다. 하이틴 소설은 중년 여성과 십대 소녀를 작품 속에서 대비적으로 그려내며 1960년대의 새로운 변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1966년 6월에 실린 『위험한 계절』은 성욕을 이기지 못해 남편 몰래 젊은 남성을 집에 기거하게 하는 계모와 십대인 딸 은나를 선과 악의 구도를 통해 그려낸다. 은나는 계모의 섹욕 때문에 함께 살게 된 형준에게 순결을 잃는다. 물론 밤에 화장실에서 나오는 은나가 옷을 제대로 여미지 못하고 나온 것을 형준이 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형준은 계모에게 묶여 있어서 은나에게 쉽게 다가올 수 없다. 결국 형준은 계모 곁을 떠나며 은나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그는 유일하게 자기 자신이었을 때가 은나를 사랑할 때밖에 없었다고 한다. 계모와의 관계 때문에 그와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은나는 울면서 뛰쳐나간다. 여기에서 계모는 자신의 성욕 때문에 청년의 육체를 이용하고, 자기 딸의 사랑까지도 짓밟는 인물로 나타난다. 하지만 십대의 사랑은 순결을 잃었을망정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었다. 사랑이 없이 성욕에만 가득 찬 중년 여성은 1950년대의 성 담론 속 적극적 여성상을 반영하는 부정적 인물로 그려진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1966년 6월호의 『처녀상』에 나오는 미라만 봐도, 십대 소녀들이 맹랑하게도 자신의 처녀성을 누군가에게 주겠다고 나설 때, 그것은 단지 성을 즐기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소녀들은 자신이 선택

한 사람에게 자신의 육체를 보여주고, 순결을 내어준다. 혹은 약간 도착적인 방식으로, 육체관계를 맺고 나면 그 남자를 사랑한다.³⁶⁾ 하이틴 소설 속 여성 인물들은 모두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는 한에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다. 이것은 1950년대 아프레걸의 인물형이 아니라 1960년대 여대생 소설 속 인물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차이는 있다. 20대 여성작가 소설 속 인물들은 사랑을 통한 성의 즐거움을 즐기기 위해 자기 스스로 현모양처가 되는 길을 택한다.³⁷⁾ 그들은 자신의 순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성의 즐거움을 어떻게 누릴 것인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그에 대한 자신들의 자발적인 해답을 찾는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안정적인 성관계를 누릴 수 있는 가정으로의 회귀는 역설적이게도 여성이 성을 즐길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이였다. 박계형의 베스트셀러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1966)은 성과 사랑 그리고 결혼에 대한 당대 여성들의 이상을 판타지에 가까울 정도로 완벽하게 구현해 내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여 결혼한 후 헌신적인 남편과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온전한 사랑을 나누었던 여성의 일생을 그려내었다.

이에 반해 하이틴 소설 속 인물들은 자신의 사랑을 안정적 연애 관계나 결혼으로 완성시키지 못한다. 여대생 소설과 하이틴 소설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하이틴 소설은 항상 비극으로 끝난다는 점이다. 하이틴 소녀들의 사랑은 타락한 여성의 훼방 때문이든지, 가난 때문이든지, 어쩔 수 없는 헤어짐 때문에, 항상 실패한다. 그들은 사랑을 이루거나 결혼에

36) 대표적으로 『명량』의 1966년 3월에 실린 『열여덟』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식모 순나는 16살이 되던 해에 주인집 아들인 대학생 현수에게 몸을 버린다. 그녀는 크게 저항하지도 않고 그 이후로도 현수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현수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자 그녀는 질투에 휩싸여 현수에게 예전처럼 자신을 사랑해 달라고 요구한다.

37) 이영미, 『한국대중예술사, 신파성으로 읽다』, 푸른역사, 2016, 377쪽.

도달하지 못하고, 가출 소녀가 되거나(『검은 베일 쓴 소녀』), 바깥이 되거나(『처녀상』), 미군과 함께 다니는 양공주가 된다(『별거숭이 소녀』). 그녀들은 사회가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연애와 결혼의 과정에서 완벽하게 배제된다. 주류적인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비극적인 정조가 하이틴 소설 속에 깔려 있다. 현실에서 버림받았다는 비극적인 정조는 식민지 시대부터 하층 여성들을 중심으로 공유되었던 신파 문화를 반영하는 지점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1960년대 하이틴 소설은 신파적이지 않다. 비극적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슬퍼하는 소녀들이 드러나지만, 이 소녀들은 이미 자신의 자발적 선택과 책임을 받아들이는 주체로 그려진다. 비극은 누구도 어쩔 수 없었던 불우한 환경 탓일 뿐, 자신을 버린 남자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녀들은 자신이 사랑한 남자에게 자신이 원해서 처녀성을 주었을 뿐인 것이다. 자신의 삶은 본인 스스로의 선택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녀들은 막연한 슬픔을 느끼기는 하지만 자학하지는 않는다.

하이틴 소녀들은 자신들이 겪는 비극을 외부적 요인의 문제로 돌리려고 한다. 사랑의 비극은 사랑하는 연인의 잘못이 아닌, 타락한 사회나 탐욕스러운 부모의 탓인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완벽하게 작동시키기 위해서, 하이틴 소녀들이 사랑하는 사람은 본능을 참을 줄 아는 남자여야 했다. 하이틴 소설 속 이상적 남성은 여자가 적극적으로 몸을 맡겨도 그 여자를 위해 자신의 본능을 참으며 여자를 진정시킬 줄 아는 남성이다. ‘여학생 소설’인 권지연의 『야광충』에서, 테니스 부 에이스인 여학생 최길숙이 좋아하는 교사 덕진은 자신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표현하는 제자에게 엄격하게 거리를 지키며, 자신의 사랑을 휘방 놓는 제자에게 화를 내야 할 상황에서도 “교사다운 태도로 제자의 어깨를 껴안아”³⁸⁾ 준

38) 권지연, 『야광충』, 『명랑』, 1966년 1월, 217쪽.

다. 여학생들이 원하는 멋진 남선생님은 소녀들을 이성(異性)으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성(理性)적으로 존중해주는 남자인 것이다.

『길숙이 돌아가지. 집으로 돌아가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밤을 새울게 아니야 응? 길숙이』

그는 나이 많은 아버지가 딸아이를 타이르듯이 다사로운 목소리고 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나는 그의 그런 말을 듣자 온몸의 피가 뜨거워 오는 듯한 쾌미(快美)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품이 한없이 믿어왔고 정말 이이야 말로 내가 나의 장래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만 자제심을 잃고 그의 품에 안겨서 소리 내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난 안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언제까지나 여기서 살래요. 절 내쫓지 마세요.』³⁹⁾

하이틴 소설 속 소녀들의 이상형은 『명랑』에 실린 수기(手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위 인용문은 하이틴 시절에 사랑하는 사람과 하룻밤을 보낸 후 사생아를 낳은 20세 미혼모 장길숙의 수기이다. 장길숙은 남자에게 순결을 준 이유가, 남자의 방으로 찾아간 자신을 남자가 아버지처럼 걱정스럽게 타이르며 돌려보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자신의 본능을 억누르고, 사랑하는 여자의 순결을 지키려고 하는 남자는 믿음직스럽다. 그래서 소녀들은 이런 믿음직스러운 남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스스로 맡긴다.

하이틴 소설 속 이상적 남성과 이상적 여성의 모습은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 여성의 순결을 지켜주려는 듬직한 남자와 사랑하는 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려는 적극적 여자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의 처녀를

39) 장길숙(20, 시내 신당동), 『사생아가 문제다-수기1: 나는 미혼의 어머니』, 『명랑』, 1965년 3월, 134-135쪽.

적극적으로 바치려는 소녀들은 남성의 성욕을 당연시 여기고 이 본능을 자유롭게 충족시키려는 남성들의 환상 속에서 만들어진 여성상이었다. 하지만 이런 소녀상을 그려내는 과정 속에서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소녀가 원하는 이상적 남성상의 모습은 당대 소녀들의 환상을 통해 만들어졌다. 본능을 자제할 줄 아는 이성적 남성상의 구축은 1960년대 중반 하이틴 소설 속 소녀들의 욕망을 잘 표현해 준다.

하지만 이런 이상적 남성과의 연애나 결혼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예쁜 연애나 성공적 결혼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극적 정조가 하이틴 소설 속 소녀들의 현실 인식이었다. 하이틴 소설 속 소녀들은 여대생 소설 속 여대생과 달리,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결혼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받아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소녀들은 자신의 비극적 현실을 스스로 받아들이기 위해 낭만적 사랑의 서사에 기대다. 소녀들은 자신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모든 결과를 감내하겠다는 모습을 보여 준다.

얼어진 채 정신없이 잠이 든 석규 곁에서 진희는 쪼그리고 앉아 밤새도록 소리 죽여 울었다. 자꾸 자꾸만 눈물이 쏟아졌다. 웨일일까? 석규에게 순결을 빼앗긴 때문일까. 하지만 사랑하는 석규에게 혹 순결을 주었다 해서 그것이 이렇게 슬플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온통 비어버린 것 같은 이 한없는 허탈감. 그것 때문일까. 그는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하고 있을까? 적어도 그가 아무리 녹초가 되었더라도 내가 누구라는 것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정신을 차리고 난 뒤 오늘밤 일을 후회하거나 무거운 죄의식으로 하여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더욱 슬픈 일일 것 같았다. 석규가 술만 먹지 않았더라면 맨 정신으로 자기에게 다가왔다면 자기는 지금 이렇게 격한 허망과 슬픔을 깨물지 않고도 그의 욕구를 무서움 없이 한편으로 스틸 있는 기억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문제였을 것이라고 생각했다.⁴⁰⁾ (밑줄은 인용자)

『감감한 방황』에서 여주인공 진희를 괴롭히는 것은 자신의 순결을 석규에게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아니다. 그녀의 괴로움은 석규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닌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진희는 석규가 자신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직 석규의 마음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희는 슬플 뿐이다. 진희는 석규가 마음의 결정을 내릴 때까지 석규를 괴롭히지 않기로 마음먹고, 조용히 사라진다. 그녀는 석규가 자신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 진희의 슬픔은 이렇게 석규가 사랑하기만 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그려진다.

하이틴 소설 속 소녀들은 자신의 처녀성을 훼손당한 것에 대해 원한과 감정을 가지거나 한탄하지 않는다. 오히려 처녀성을 사랑하는 사람에겐 주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할 뿐이다. 그녀들의 비극은 순결을 빼앗아간 나쁜 남자들로 인해 발생한 비극이 아니다. 본능에 충실했던 남자들은 나쁘지 않다. 심지어 그 남자들은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 의지력 있게 노력하였다. 그 남자에게 처녀성을 준 것은 자신의 선택이었다. 그 선택은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다. 비극은 항상 불우한 환경에 의해서만 일어난다. 이렇게 만들어진 담론 구조 속에서 여성들의 성적 자유는 언제나 낭만적 사랑에 의해 채색된다.

사랑하기 때문에 처녀를 바친다는 여성의 낭만성은 남성의 본능 추구에만 관대했던 남성 중심 사회 속에서 여성이 스스로의 주체성을 실현할 수 있는 허약한 환상의 스크린이었을 것이다. 낭만적 사랑으로 포장된 여성의 주체성과 성적 자유는 성관계를 통해 사랑을 확인받을 수 있다는 하이틴 로맨스 그리고 할리퀸 로맨스의 문법으로 이어진다. 고단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소녀 앞에 나타난 무뚝뚝한 남성, 소녀를 사랑하지 않는 듯 하지만 실은 소녀를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본능을 힘겹게

40) 장승기, 『감감한 방황』, 『명망』, 1965년 12월, 203쪽.

억눌렀던 남성, 그런 남성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소녀, 자신도 알지 못했던 자기 안의 열정, 이렇게 완성되는 낭만적 사랑, 이는 로맨스 소설의 보편적 서사이다. 1960년대 중반의 하이틴 소설 속 이상적 남성상과 낭만적 사랑의 환상은 이러한 로맨스 소설의 문법과 궤를 같이 한다. 물론 한국에서 할리퀸 로맨스의 정식 발간은 1979년 삼중당에서 ‘하이틴 로맨스’ 시리즈를 출간하면서 이루어졌다. 다만 1979년에 할리퀸 로맨스가 출간될 수 있도록 한 동력은 1960년대 중반에 부각되기 시작한 하이틴들의 성과 사랑에 대한 새로운 윤리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된 이상적 남성과의 낭만적 사랑에 대한 환상일 수도 있을 것이다.

5. 결론

1960년대 중반은 군부 정권의 사회 통제가 본격화되는 시기였다. 제도적 권력의 억압 속에서 1950년대에 분출되었던 자유는 일견 사라지는 듯하였다. 자유는 방탕이라는 오명 하에 사회적 하위 주체들에게 분담되었다. 여성과 미성년자는 사회적 타락을 야기하는 음란의 담지자였다. 그들은 통제되어야 했지만, 통제를 위해서는 그들의 타락이 말해져야 했다. 1960년대 하위 주체인 여성, 여성 중에서도 십대 소녀들의 타락은 통제라는 가면을 쓰고 공공연하게 말해졌다. 대중잡지는 이러한 사회적 경향을 가장 발 빠르게 포착하였다. 『명랑』이 기획한 하이틴 소설 속에는 사회의 상식적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음란한 소녀들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지식인 담론에서처럼 비판과 계몽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남성 대중들의 욕망 분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잡지 속 여성 인물들은 여성 스스로의 욕망 또한 드러내고 있었

다. 비록 그 욕망이 낭만적 사랑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힌 것이었을지라도, 성에 대한 여성의 공포에 휩싸이지 않고 주체적으로 성을 즐기고 싶다는 여성의 바람을 드러내 주었다.

1960년대 중반 『명랑』에 주목하였을 때, 대중잡지라는 매체를 통해 드러난 여러 층위의 욕망들을 살필 수 있었다. 대중매체는 언제나 단순하게 공격받는다. 대중문화가 문화 전반을 주도하고 있는 현재에도 주류 담론 속에서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은 항상 깊이가 없다, 저속하다, 가볍다는 이유로 비난 받는다. 이는 대중문화를 엘리트문화와의 이항 대립적 도식에서 단순하게 파악하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이다. 대중의 층위는 다양하고, 대중의 욕망 또한 다양하며, 그렇기 때문에 대중 매체에 나타난 대중의 욕망은 다층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1960년대의 주류 담론이 모두 현모양처와 순결주의의 승리를 외칠 때, 대중잡지 속 대중의 욕망은 계층별, 젠더별 차이에 의해 순결 이데올로기와 현모양처 담론 속에서도 나름의 자유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그것이 비록 도착적인 성 담론이나 낭만적인 사랑 담론으로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주류 담론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 대중의 다층적이 욕망이 존재하였기에 억압의 시대를 지나면서도 1970년대 청년 문화를 가능하게 했던 새로운 문화적 감각이 대중들에게 수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조선일보』
『명랑』, 신태양사, 1960~1969년.

2. 논문과 단행본

- 권두현, 「전후(戰後) 미디어 스퀘이크와 공통감각으로서의 교양-취미오락지 『명랑』에 대한 물질 공간론적 접근」, 『한국문학연구』 44호, 2013, 7-46쪽.
- 권명아, 『음란과 혁명-풍기문란의 계보와 정념의 정치학』, 책세상, 2013.
-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 천년의상상, 2012.
- 김복순, 「1960년대 소설의 연애전유 양상과 젠더」, 『대중서사연구』 14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08, 7-56쪽.
- _____, 「산업화의 최종심금과 재현의 젠더-1960~7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7호, 한국현대문학회, 2009, 409-449쪽
- 김성보 외, 『한국현대생활문화사 1960년대-근대화과 근대화』, 창비, 2016.
- 김연숙, 「대중잡지 『명랑』을 통해 본 전후 개인관계의 서사-1950년대 후반 '독자사교란' 기획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2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6, 39-69쪽.
- 김지영, 「1950년대 잡지 『명랑』의 '성'과 '연애' 표상-기사, 화보, 유머란(1956~1959)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10호, 한림과학원, 2012, 173-206쪽.
- _____, 「통속오락잡지 『명랑』을 통해 본 전후(戰後) 사랑의 인식 구조-195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68호, 민족어문학회, 2013, 159-207쪽.
- _____, 「『명랑성』의 시대적 변이와 문화정치학-통속오락잡지 『명랑』의 명랑소설(1956~1973)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78호, 민족어문학회, 2016, 217-268쪽.
- 김현주, 「1950년대 오락잡지에 나타난 대중소설의 판타지와 문화정치학-『명랑』의 성애소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19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3, 83-116쪽.
- 박차민정, 『조선의 퀴어-근대의 틈새에 숨은 변태들의 초상』, 현실문화, 2018.
- 이수영, 『섹슈얼리티와 광기-한국 근대문학과 얽힌 의지』, 그린비, 2008.
- 이영미, 『한국대중예술사, 신파성으로 읽다』, 푸른역사, 2016.
- 이주라, 「건전 국가를 월경하는 명랑 시민」, 『개념과 소통』 20호, 한림과학원, 2017, 87-117쪽.

- 이혜원 외, 『아동청소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아동복지학』 28호, 한국아동복지학회, 2009, 73-100쪽.
- 임유경, 『외설과 법, 판례의 탄생-1960년대 ‘문예 재판’과 외설 담론 연구』, 『개념과 소통』 21호, 한림과학원, 2018, 169-215쪽.
- 장수경, 『1960년대 『학원』에 나타난 근대화와 청소년의 위계화 양상』, 『비교한국학』 17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09, 429-458쪽.
- 조은정, 『1960년대 여대생 작가의 글쓰기와 대중성』, 『여성문학연구』 2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87-118쪽.
- 최애순, 『1950년대 활자매체 『명랑』 ‘스토리’ 공유성과 명랑공동체』,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9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241-262쪽.
- 허 윤, 『1960년대 불량소녀의 지형학』, 『대중서사연구』 20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4, 103-130쪽.
- 홍양희 외, 『‘성’스러운 국민』, 서해문집, 2017.

Abstract

The Birth of a Dirty Girl

— High-teen Fictions of the Popular Magazine *Myeongrang* in the 1960s⁴¹⁾

Lee, Ju-Ra(Hallym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discourse surrounding teens in the mid-1960s, focusing on the popular 1960s magazine *Myeongrang*. This paper analyzed the social attention to disordered teenagers, the discourse about teenagers in popular magazines, the representation of teenagers, and finally the features of sexual discourse in adult men and their perception about sex and love of teenager girls.

In the high-teen fictions, designed by *Myeongrang*, there were depictions of girls who voluntarily abandoned virginity. The girls were the target of criticism and the object of enlightenment in intellectual discourse; otherwise, in popular magazine discourse and novels, they were used as a means of men's desire. They were the object to satisfy the instincts of the male public without guilt. Nonetheless, the girls in popular magazines longed for being the subject to voluntarily enjoy love and sex with their lovers. This desire began to form the basic element of romance, in which men who were reasonably protective of women and women who were passionately approached men made romantic love.

In this paper, I analyzed the discourse of sexuality and the representation of teens who were defined as a disordered beings in the flow of the 1960s conservatism. Through this, the study revealed the perception and desire of the public that was suppressed in mainstream discourse in the mid-1960s, as well as the background of the formation of teen culture and novel that appeared in the 1970s.

(Keywords: *Myeongrang(Cheerful)*, popular magazine, adolescent, teenager, high-teen, girl, romance, ajeossi(middle-aged man), virginity, purity, obscenity)

⁴¹⁾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8S1A6A3A01022568)

468 대중서사연구 제24권 3호

논문투고일 : 2018년 7월 14일

심사완료일 : 2018년 7월 29일

수정완료일 : 2018년 8월 8일

게재확정일 : 2018년 8월 13일